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 홍유기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영주<39세(남) 공직생활 9년 차 무주택 공무원> / 수민<41세(여) 영주의 2년 된 여자친구> / 어머니<영주의 어머니, 영주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 / 청년주택<영주가 지원한 청년주택 심사담당자> / 동료A<영주의 직장동료> / 주민센터<영주의 거주지 주민센터 직원> / 동료B<영주의 직장동료> / 총무과<영주가 근무하는 곳의 총무과 수당 담당자> / 민원인<취득세 신고를 위해 영주를 찾아온 민원인> / 콜센터<영주가 지원한 청년주택 콜센터 상담사> / 팀장<영주의 팀장> / 실태조사<영주의 거주지 주민센터 실태조사 조사담당자> / 감사과<영주가 근무하는 곳의 감사부서 재산신고 담당자> / 최계장<51세(남), 영주의 선배 과거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음>

시놉시스

【기】 공직생활 9년 차, 고시원 생활도 9년 차로 접어든다. 상경하여 서울 도심권에서 생활하는 영주에게 집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다. 집을 사는 것은 애당초 여건이 되지 않았고 남들 다 하는 전세라도 구하려고 하면 영주에겐 전세보증금 마련도 여의찮았다. 그런 영주는 공직 초기부터 고시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동료, 연인 심지어 민원인에게 받았던 설움은 영주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있었다.

【승】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청년주택 모집공고에 희망을 엿보게 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주택, 무차량 요건은 성립되었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요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영주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옮겨 놓아 소득요건을 맞추려는 계획이었다. 1인 소득이 아닌 2인 소득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전】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어머니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청년주택에 지원하여 당연히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낙첨'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 지원자가 많아 추천에서 밀려난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모 봉양 목적으로 근무지에서 받게 되는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으로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려 하는 영주였다.

【결】 그러나 뉴스와 신문 기사의 위장전입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내용을 접하며 본인이 계획했던 일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님을 점차 깨달아간다. 고위 공직자만이 아닌 공공의 일을 하는 자라면, 나아가 모든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님을 당연히 인지하고 지켜야 함을 느껴가고 있었다. 영주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다시 고향으로 복귀시켜 놓고 받았던 수당은 기관에 자진 반납한다. 그렇게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는 영주에게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그 빛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장소(무대)

성인 남자 한 명이 누우면 더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 1.5평짜리 고시원 방에 조명이 서서히 들어온다. 방 한편에는 노트북 한 대와 책 몇 권, 먹다 남은 라면 봉지가 놓여 있다. 반대편에는 일주일 치 빨래가 밀려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다. 영주는 오늘도 야근 후 밤 10시가 되어서 퇴근하고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연다. 유난히 오늘 더 적막하게 느껴지는 방의 스산한 기운이 영주를 눈물짓게 한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중 오랜만에 어머니에게서 걸려 온 번호가 영주의 눈물을 잠시 멈춘다.

S#1. 영주의 고시원 방(늦은 밤)

어머니 :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아직도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거지? 내가 미안하구나. 전셋집이라도 구해줘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영주 : (애써 담당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해야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10년 가까이 근무하면 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야죠. (통화가 끝나고) 서울에서의 공직생활이 10년이 다 되어가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전셋집 얻기도 너무나 버겁네. 세상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으로 오늘 새벽을 또 지새워야겠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영주는 한참을 생각에 빠진다. 그리곤 억지로 잠을 청한다. 다음날 어느 때처럼 일찍 출근한 영주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고민을 떠올린다.

영주 : (독백) 어떻게 이 고시원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땅치가 않네. 동료들은 자꾸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나도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드네.

S#2. 영주의 사무실(오전)

그런 시름으로 하루하루 업무를 하던 중 영주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차린다.

동료A : (동료B를 향해) 영주씨 그 직원, 아직도 그 고시원에 산다며? 어쩐지 케케묵은 냄새가 난다더니, 흠아비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대체 언제까지 거기에 산다고 그러디?

동료B : 나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이사를 하라고 충고했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다니까? 저 사람은 여기하고 도통 어울리지 않아. 어느 정도는 기분은 돼야 동료들하고도 어울리지, 그거 알아? 간혹 민원인들도 저 친구 행색을 보고 가볍게 본다는 거, 괜히 우리까지 그렇게 보일까 봐 걱정돼, 저런 직원이 우리하고 같이 일한다니 참... 사람이 착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싶어 그러지도 못하고...

영주는 요즘 부쩍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런 따사로움에 이제 적응이 된 듯 개의치 않고 일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스러운 한 민원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민원인 : (약간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한번 통화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저 취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통화한 ○○○입니다. ○○○주무관님 맞으시죠?

영주 : 네, 제가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민원인 : (영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전화로 문의했을 때 취득신고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체 세금을 낸다는 사람을 가로막는 이유가 뭐니까?

영주 : (민원인의 높은 언성에도 굴하지 않고)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고율의 세율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뜻인 낮은 세율로 신고납부를 하는 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세계약서는 가족 간에 체결된 가공 채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까?

민원인 : 자그마치 4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의 체결입니다. 가족 간에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민법상에도 자유계약 의지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왜 주무관님은 안 된다고 합니까?

민원인의 파상공세에 잠시 소강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민원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간다.

민원인 : 혹시 주무관님?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계십니까? 보아하니 설마 월세로 사는 겁니까?

영주 : (굳이 대답할 이유도 없지만, 짐짓 놀라며) 저는 40만 원짜리 월세방에...

영주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어나가다 아차 싶어 중도에 멈춘다.

민원인 : 아 월세 40만 원이요? 4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 체결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거였군요. 하하! 거러 잘못되면 주무관님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40만 원짜리 월세방에 전전공금하면서 도대체 이 정도 규모의 거래에 왜 상관하냐고요!

영주는 더는 대항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민원인의 드센 공세에 홀로 해결할 방책을 찾지 못해 팀장님을 찾아가다. 그리고 팀장님과의 협의 후 납세자 보호 우선 원칙주의에 따라 일단 신고를 접수한다. 그리고 뒤이어 민원인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후 멀찍이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팀장 : 영주씨, 드센 민원인 응대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고생했어,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영주 :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제가 저렇게 큰 전세보증금 앞에서 괜히 움츠러들어 신고를 받아 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처리를 잘한 것이 맞는 거 같네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주는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푹 숙인다. 민원인이 돌아간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이 40만 원 월세 고시원에 산다는 것을 얼떨결에 답한 것과 민원인이 40억이나 하는 전세보증금의 주택에 산다는 현실이 자신과 너무나 대비돼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모습인 듯하다.

영주 : (독백) 민원인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되다니, 왜 난 그 순간에 40만 원 월세방에 산다고 얘기를 꺼낸 걸까, 바보같이, 그래서 날 더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언행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 아, 하루빨리 고시원을 떠나든가 해야지. 동료, 민원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런 한숨이 가득해져 갈 때 감사부서에서 뜻밖의 전화가 수신되었다.

감사과 : ○○○주임님이시죠? 여쭙볼 게 있어서.. 이번에 재산신고 하신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주 : 네 주임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틀린 부분이라도?

영주는 감사과의 전화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감에 휩싸여 수화기에 귀를 더 가까이 댄다.

감사과 :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신고가 누락되었어요. 그 부분이 전산에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라고 판단하여 넘어가지만, 내년 신고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영주 : (조금의 지체도 없이 허탈한 웃음을 보이며) 아 주임님,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그러니까..(순간 고시원이란 단어가 나올 뻔한 것을 힘껏 누르며) 그... 월세방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 신고를 안 한 것이 맞는 거죠.

영주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웬지 모를 씁쓸함에 젖는다.

감사과 :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쁘신데 죄송했어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재산신고 담당자는 대략 영주의 처지를 아는 듯했다. 그래도 애써 모른 체했다. 평소 성실하고 착실히 근무하는 영주에게 웬지 모를 서러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영주는 재산신고 담당자와의 통화 후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하게 된다. 힘에 겨워 직장마저 그만두고 싶은 심정까지 다다른 영주는 연인 관계인 수민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전화를 건다.

S#3. 직원 휴게실

영주 : 퇴근은 했어? 저녁은 먹었고?

수민 : 지금 퇴근 중이야, 어 근데 영주야? 나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생각해봤어? 네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는 말, 넌 우리 집은 놀러 오면서 왜 네 집은 못 가게 하는 거야? 집에 꿀 숨겨 놓은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영주 : (한참을 생각한 후) 아.. 집 정리를 안 해놓아서 어지러운 상태야.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잖아, 괜히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줘..

수민 : (강한 의지를 다지며) 도대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는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집 정리 안 되어도 괜찮아 다 이해해,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농담 삼아) 너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구나.. 솔직히 말해봐?

자신이 고시원에 산다는 것을 수민이 알면 실망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는 버틸 수가 없음을 감지한 영주의 모습이다.

영주 : (조심스레 말문을 열며) 그래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내일 퇴근 후에 와, 약속 하나만 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도 이해 해 줄 거라는 약속 말이야..

수민 : (기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당연하지! 그럼 내일 퇴근하고 봐!

S#4. 영주의 고시원 건물 입구(저녁 무렵)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온 건 같은 그날, 영주는 수민을 마중하러 나간다. 반갑게 달려오는 수민의 모습에 영주의 얼굴은 점 점 상기되어간다. 그리고 4층에 있는 영주의 방에 같이 올라간다.

수민 : 꽤 높네, 아직 멀었어?

영주 : 이제 다 왔어, 여기야.. (방문을 열며) 여기야.. 여기

수민 :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아.. 여기구나.. 음... 냉장고는 어디.. 아 여기 작은 냉장고..

영주 : 자, 이제 방 보여줬으니 됐지? 아직 저녁 전이지?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수민 : (무언가 떠오른 듯한 놀란 얼굴을 하며) 아.. 생각해보니 내가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었네, 저녁은 다음에 하자, 나 먼저 갈게.. 연락할게..

영주는 수민의 그 말이 마지막이란 걸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한다.

S#5. 영주의 사무실 복도(오전)

영주 : (수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놓으며)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내가 사는 방을 보고 실망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수민이는 그런 거 이해해줄 사람이야, 괜히 의심하지 말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거의 온종일 전화해도 수민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자꾸 자리를 비운다는 동료들의 핀잔에도 영주는 연신 복도 끝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다. 그날 저녁 한 통의 문자가 영주를 허탈하게 한다.

수민 : (휴대전화의 문자를 보며) 영주야, 미안해, 사실 어제 네가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물론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넌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지내..

영주는 어떤 답장도 하지 못한다. 그 마음엔 부끄러움과 주책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감이 이리저리 혼재된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 후 영주는 부쩍 자주 술로 밤을 보내며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나 심지어 결근하는 적도 잦아졌다. 평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동료들은 그런 영주가 게임에 빠졌거나, 주식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축은해한다. 그런 낙

은해한다. 그런 낙담으로 또다시 하루를 보내던 어느 순간이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영주는 인터넷에서 전셋집을 한참 알아보던 차 우연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 모집공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영주 : (독백)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왜 난 여태껏 몰랐지? 나이 요건이 되니까 신청하면 되겠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군!

절망에서 환희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된 영주는 기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영주 : 어머니! 저 이제 고시원을 벗어나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 (놀란 표정으로) 아 그래? 급하게 구한 것을 보니 혹시 요새 전세 사기가 많다던데 그런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할 텐데..

영주 :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전세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 4년 정도는 낮은 월세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 내는 월세의 1/5 수준이에요. 그동안 월세 낸 것만 해도 너무 아깝네요.

어머니 :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넓은 방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참 흐뭇하구나.

어머니와의 감격스러운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영주는 인터넷으로 청년주택 모집공고에 응시하려고 한다. 그때 모집 요강 내용을 보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영주 : (근심 섞인 표정으로) 음.. 나는 차도 없고, 주택도 없고, 주소지도 ○○시 ○○구로 되어 있으니 적합한데, 소득요건이 참 애매하네. 이걸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야겠다.

영주는 모집공고를 낸 ○○○기관 담당자 전화한다.

청년주택 :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영주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청년주택 모집공고의 소득요건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1인 가구이고 소득은 ○○○원인데 혹시 대상이 되나요?

청년주택 : 1인 가구라면 세대주이신가요? 그렇다면 모집 요강의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소득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본인께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주 : (풀 죽은 목소리로) 아.. 네... 감사합니다.

영주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급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의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모집 요강의 소득요건과 비교해본다. 본인의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는다.

영주 : (독백)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소득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난 차도 없고 주택도 없는데, 다만 근무를 오래 해서 보수월액만 높은 것인데 왜 내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난 지원도 못 해보고 단념해야 하는 걸까...

영주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공고의 모집 요강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영주 : (독백) 맞아! 1인 가구 소득은 충족이 안 되지만 2인 가구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생각해 보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 주소를 나한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하면 2인 가구 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청년주택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 거지!

영주의 눈빛이 다시 새록새록 해진다. 들뜬 마음으로 다시 영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영주 : 어머니! 저 얼마 전에 청년주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원하려면 여러 요건이 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차도 없는데 다만, 1인 소득 기준이 초과하여서 어머니가 주소지를 저한테로 옮겨 놓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2인 가구 소득이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건 자체가 어려우니까 신청만 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 그래, 영주 네가 잘된다면야 주소지 옮기는 것쯤은 당연히 해야지, 무얼 준비하면 되는 거니? 내가 직접 서울로 가면 되는 거니?

영주 : (순간 다른 걱정이 깃든 모습으로) 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소를 옮기면 어머니께서 백신주사 맞는 것도 서울에서 받으셔야 하고 곧 있으면 선거인데 아버지하고 떨어져 서울에서 하셔야 하고 혈압약도 고향에서 처방을 못 받고 서울에서 받으셔야 하고...

영주는 이런저런 생각에 주소지를 옮기는 의지를 순간 멈칫하게 된다.

어머니 : 그런 건 염려 말려무나, 그거야 뭐 서울에서 다 하면 되지, 혹시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내가 한번 약 짓는 거 서울에서 가능한지 알아보마, 주사 맞고 투표하는 거야 서울에서 하는 거나 고향에서 하는 거나 매한가지지.

영주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 무척 고마워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한다.

영주 : 어머니를 대신해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민센터 :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 : 네 감사합니다. 곧 방문하겠습니다.

S#6. 다음날 출근 후 사무실 근처 인쇄사, 주민센터(점심시간)

영주는 어머니의 도장을 만들기 위해 인근 인쇄사에 들린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0분간 접수처리를 한 후 훌가분한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빠져나온다.

영주 : (독백)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2인 가구에 내 소득만 확인되는 결과가 되어 소득요건도 충족되니 이제 신청만 남았구나!

S#7. 영주의 사무실(오후)

영주는 청년주택 모집공고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서로 접속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소득요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각 항목을 선택한 후 최종 지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영주 : (독백) 자 이제 신청했으니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발표는 다음 주네, 얼른 발표돼서 입주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기다림은 견딜 수 있지!

영주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라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인다.

영주 : (독백) 아! 생각해보니 어머니 주소가 나와 같으면 부양가족으로 해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도 받을 수 있었지, 얼른 총무과에 문의해서 소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영주는 총무과 담당자의 다이얼을 세차게 누른다.

영주 : 아! 담당자님 저 ○○○주무관입니다. 여쭙볼 게 있어서, 제 어머니께서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그럼 올해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총무과 : 주임님, 네 그렇습니다. 공문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다음 달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본인의 주소지로 옮긴 후 하나둘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을 보고 진작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지원했던 청년주택의 심사대상자 공고 결과를 확인해본다.

영주 :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어? 이상하다. 심사대상자는 분명 안내 문자도 온다고 했는데, 난 왜 발표 시각인 17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문자가 안 왔지? 혹시 누락되었나.. 하긴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명단을 보자..

한참을 심사대상자 명단을 보던 영주는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영주 : 아! 역시 이름이 있네! 어? 근데 이상해, 생년월일이 다르네, 동명이인인가? 대체 뭐지?

영주는 상담콜센터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 문의한다.

영주 :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주택에 지원한 신청자입니다. 심사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 같은데 생년월일은 다르니
다. 어떻게 된 거죠?

콜센터 : 아 혹시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죠?

영주 : xxxxxx-1xxxxxx입니다.

콜센터 : (전산을 확인한 후) 아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접수번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생님의 접수번호는 ○○○○
인데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그 접수번호가 아닙니다.

영주 : (충격에 빠진 기색이 역력한 듯 말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분명 제 이름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
고 저는 1순위 요건이 되니까 분명 심사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콜센터 : (영주를 진정시키며) 네 선생님 말씀대로 1순위 요건으로 신청하셨기에 맞습니다. 하지만 1순위 대상자가 워낙 많아
서 모두가 다 심사대상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접수번호로 확인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아
실 수 있는 겁니다.

영주 : (상담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주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다른 상담사에게도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사실을 재확인한다. 상담사 모두 같은 답변에
영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영주 : (독백)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분명 소득요건이 2인 가구라 요건이 되는데도 왜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
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

S#8. ○○○○공사 청년주택 부서(오전 9시경)

다음날 영주는 급히 연가를 내고 ○○○○기관의 심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간다. 기관의 업무가 시작되는 9시가 되자마자 허겁
지겁 담당자를 찾는다.

영주 : ○○○○담당자를 찾습니다. 청년주택 심사담당자를 찾는다고요!

평소 영주에게서 보기 힘든 다급함과 약간의 무례함이 진하게 묻어 나온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영주를 담당자에게로 안
내한다.

영주 : 저 이번 청년주택 지원자입니다. 저는 주택도 없고, 차도 없으며, 소득요건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심사대상자 명단에 제
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격이 되는데 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건가요?

청년주택 : 아.. 저번에 통화 여러 번 했던 분 같은데..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영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접수번호를 물어 전산으로 확인 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한다.

청년주택 : 선생님의 경우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산 무작위로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선정되지 않으신 겁니다.

영주는 분명 모집공고문을 몇 번이고 살펴보고 또 확인하였지만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였을 때 담당자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는 말을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영주 : (어금니를 꼭 깨물며)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배수 안의 심사대상자 중에서 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모집
하는 거군요?

청년주택 :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주 : 그럼 요건이 되어도 지원자 수가 많으면 운이라는 부분이 작용하는군요...

청년주택 : (영주의 말이 맞지만, 그 어떤 답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네..

S#9. 기관을 빠져나온 후 인근 식당(오전)

영주는 힘없이 기관을 빠져나온다. 아직 대낮이지만 술을 마시러 근처 식당으로 향한다. 혼술, 그것도 낮부터 시작된 광경은 영
주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영주는 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마셔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 씻
지도 않은 채 잠들고 만다. 다음날 몸과 맘이 피곤했던 영주는 가까스로 출근한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조금 흐른 후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였다.

S#10. 영주의 사무실(오전)

어머니 : 영주야, 지난번 신청한 청년주택은 어떻게 되었니? 잘 진행되었니?

영주 : (한참을 머뭇거리며) 아, 탈락했어요. 생각보다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
가 선정되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약간은 흐느끼는듯한 영주의 모습을 어머니는 훤히 알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야.

영주 : 그렇긴 하지만 지원자 수가 워낙 많으니 쉽지 않네요. 더군다나 신청을 위해 어머니 주소지까지 옮기는 고생을 했는데, 죄송하고 마음이 참 그렇네요.

영주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업무에 임한다. 낮빛은 매일 어둠으로 채워져 간다.

영주 : (독백) 청년주택은 뭐 다음 기회에 또 신청을 해봐야겠고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는 꼭 받아야지, 그건 요건이 되는 거니까....

다음 달 통장으로 입금된 수당을 보며 1년 치료 계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의 미소를 되찾는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 후 오전 출장이 있어 현장으로 출동한다. 출장이 끝나고 복귀하려던 찰나 낯선 전화번호가 찍힌 것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영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S#11. 출장지(사무실에서 약 30분 거리)

영주 : (독백) 평소 같으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당연히 안 받을 텐데, 요새 스팸 번호가 워낙 많아야 말이지, 근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네? 우리 사무실 직원의 번호일 수도 있잖아. 출장이라 긴급히 연락한 것일 수도 있고...

영주는 조심스레 수신 버튼을 눌러본다. 이윽고 낯선 목소리는 영주를 더욱 긴장케 한다.

실태조사 : 혹시 ○○○씨 아니세요?

영주 : 아닌데요. (멈칫한 후 무언가 떠오른 듯) 저희 어머니 존함이신데, 무슨 일이시죠?

영주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어머니를 찾는 사람이 몹시 궁금해졌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간다.

실태조사 : 집 앞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영주 : 저희 어머니를 왜 찾으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놀란 입을 틀어막으며) 아, 저희 어머니는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영주는 그제야 어머니가 본인의 주소로 전입 신고한 것을 떠올렸다. 상대의 신분을 다급히 묻는다.

영주 :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실태조사 : 아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하셔서 정기 점검차 실제 거주 여부 보고를 해야 해서 어머니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가 계시다니 별수 없군요.

영주 : (숨을 고르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대신 서명을 할 순 없나요? (무언가 떠오른 듯 다시 말을 바꾸며) 아니 저도 지금 업무차 외부에 있어서 집에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이 통화로 그것을 갈음할 순 없나요?

실태조사 :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네 가능합니다. 통화 이력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니 그럼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어머니는 지방에 잠시 내려가 계신 거죠?

영주 : (약간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반복하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태조사 :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점검 때 또 찾아뵙죠. (전화를 끊으려다 멈칫하며)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요.. 요새 무단전출자가 많아서 직권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어 피해가 없으시도록..

영주 : (애써 태연한 척) 네,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감사합니다.

S#12. 영주의 사무실

영주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얼른 복귀 후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그리고 '무단전출 직권말소'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찾아본다. 얼마 후 황급히 전입신고한 주민센터로 전화를 한다.

영주 : 담당자님, 저 여쭙볼 게 있어서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주택청약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를 친구 주소지로 옮겨 놓았고요. 실제 부모님께서 거주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 : 아,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장전입신고를 하면 당연히 무단전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유를 소명하면 되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니까요.. 주무관님 이 아니라 친구분 얘기라고 하셨죠? 혹시 친구분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해 드릴게요.

영주 : (짐짓 놀라며) 아..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통화가 끝나고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며) 내가 지금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청년주택 지원을 위해 어머니가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깟 주택이 뭐라고!

영주는 급히 통화를 종료하고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후 평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자주 청했던 최계장을 찾아간다. 다짜고짜 여러 물음표를 던지는 영주와는 달리 침착한 최계장의 모습이다.

S#13. 감사부서(영주의 사무실 위층)

영주 : 최계장님, 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해요? 주민센터는 왜 점검을 나오는 거죠? 오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제 공직생활에 흠결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최계장 : 원래 전입신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해, 당연히 규정상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영주씨와 같은 경우처럼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 청약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절차로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전화 올 때마다 오늘과 같이 그렇게 대응하면 그만이지.

영주 : (다소 안심이 되는 듯한 목소리로)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 전화 받고 하마터면 사실 그대로 말할 뻔했어요. 다행히 지방에 잠시 내려가 계신다고 말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최계장은 영주의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듯 다시 사무실로 유유히 들어간다. 영주도 사무실로 복귀해 일과를 이어간다. 유난히 바쁜 시기인 요즘 그날은 더욱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된다. 시원한 물로 샤워한 후 누워 잠들기 전 휴대폰의 인터넷 기사를 살펴 본다. 그리고 평소엔 시선을 두지 않았던 사회면의 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현장에서 과거 위장전입 신고가 화두가 되어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기사였다. 평소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면 위장전입은 아무런 해(害)도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영주였지만 왠지 모를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S#14. 영주의 고시원 방(늦은 저녁)

영주 : (독백) 위장전입 때문에 장관 자리에 임명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무슨 돈을 훔친 거냐,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걸로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지? (무언가가 떠오른 듯) 내가 이번에 어머니 주소를 나한테로 옮긴 것이 그 위장전입이란 건가? 아니, 난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별 상관도 없잖아, 고위공직자야 장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나 같은 공무원은 뭐 신경 쓸 이유도 없지.. 에이 괜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나 자자...

S#15. 영주의 사무실(오전)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영주는 잠이 들다깨다를 반복하며 그 기사를 쉽게 잊지 못한다. 잠을 설친 탓인지 게슴츠레한 모습으로 출근한 영주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를 접한다. '청약주택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6세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 조치당함'이라는 기사는 큰 글씨로 표기를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강렬한 인상을 영주에게 안겨준다. 우선 공급요건, 가점 이득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몇몇 자들이 징역형에 처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을 가져다준다.

영주 : (독백) 고발? 가족 간 전입 신고하는 거로 무슨 고발까지? 청약가점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 간 전입 신고하는 건 공공연히 암묵적으로 다들 하는 거잖아? 무슨 범죄도 아닌데 국가에서 고발까지?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 다 고발당해야 말이 맞는 거지, 일부만 운이 없게 적발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기사가 맞긴 맞는 건가 나 참...

영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지만, 급격히 불안증세를 느껴간다. 무언가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듯한 심경이었다. 그리고 조금 후 총무과에서 걸려 온 전화가 영주의 마음을 더욱더 뒤흔들게 된다.

총무과 : 주무관님? 얼마 전에 통화했던 수당 담당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당 적정 수령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번에 주무관님도 수당을 받으셔서 점검표를 드릴 테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주 :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괜히 큰소리를 내며) 아니... 왜 .. 제가 제출해야 하죠? 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된 게 없다고요...

총무과 : (영주를 진정시키며) 아, 주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임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의 실소를 보이며) 설마 주임님 같은 분이 위장전입 같은 걸로 수당을 타실 분도 아닌 거 제가 더 잘 아는데, 기분 나빠 마시고 간단히 작성해서 주시지만 하면 됩니다. 내일까지니까 시간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영주 : (조금 전의 언성을 후회하며) 주임님, 제가 오늘 민원 때문에 피곤해서 괜히 언성을 높였네요. 죄송합니다.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영주는 서류를 작성하다 멈추고, 다시 작성하다 멈추고를 반복한다. 단 1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영주는 1시간 넘게 고민하고 있었다.

영주 : (억지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난 괜찮을 거야, 위장전입이라고 해두자, 그렇다고 그것으로 청년주택에 당첨이 된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겠어? 그걸 이용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순간 머리를 '탁' 치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그런데, 혹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는.. 괜히 신청했다가 어머니가 실제로 살지도 않는데 점검에서 적발되면 어찌지? (잠시 고민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네,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괜한 오지랖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류나 작성하자...

영주는 혼자 이리저리 고민에 휩싸였지만 결국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정으로 마음을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리고 커지는 것을 점점 알아차려 간다. 곧이어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 근처 모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뉴스를 접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S#16. 사무실 인근 식당(점심시간)

동료A : (동료B를 바라보며) 저 뉴스 봤어? ○○○ 지자체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주택청약이 되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다가 1년 후인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서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잖아, (혀를 꼴꼴 차며)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동료B : 아니에요. 그렇게 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엔 잘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걸요? 보통은 다 부(富)가 생기고 좋은 거죠. 안 그래? 영주씨 생각은 어때?

영주 : 아 네... 그렇죠 뭐 주택에 청약되면 좋은 거죠... 뭐...

동료A : 영주씨? 왜 그리 말을 더듬어? 마치 주택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신고 한 사람마냥.. 하하

동료B : (미소를 보이며) 영주씨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얼른 밥이나 먹죠.

S#17. 영주의 사무실(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주는 그날 점심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점심 후 차 한잔하자는 동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사무실로 일찍이 들어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전입 공무원’, ‘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위장전입에 연루된 공직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

영주는 검색할 때마다 나오는 여러 기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검색을 이어갈수록 심호흡은 가빠지고 눈의 초점은 흐트러져 간다. 그런데도 영주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기 일이라고 점차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의 업무가 종료된 저녁 6시가 훌쩍 넘은 시간,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였지만, 영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는 팀장님의 권유에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영주는 많은 것을 떠올린다.

영주 : (깊은 깨달음에 흐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다물며) 위장전입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이었구나, 왜 난 이제껏 그 중요함을 모르고 지냈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생각해 보니 청년주택에 당첨 안 되었다는 그 사실로 내가 한 행동들이 그저 과거의 일로만 묻히는 건 아닌 것 같아, 비록 그것으로 내가 청약된 건 아니지만 난 바르지 못한 과정을 선택하였고 그것으로 이득마저 볼 수 있었던 거잖아, (입술을 꼭 깨물며) 맞아, 나와 같은 상황에서 정정당당히 자신의 자격대로 지원한 사람과, 우회적·편법적 방법으로 지원한 나는 당연히 다른 것이었어,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더욱 선도적 위치에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을 마다치 않았던 나의 그 방향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지, (무언가 떠오른 듯) 이제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으니 우선 그것부터 하자!

영주 : (총무과에 보낸 수당 요청 공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비록 형식적으로는 가족수당 요건에 맞긴 하지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거주하지도 않는데 나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수당을 얻게 된다면 국가가 진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정작 수당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거야.

다음날 영주는 얼마 전 찾았던 최계장에게 다시 향한다. 그리고 숨을 깊게 고르며 말을 꺼낸다.

S#18. 감사부서(영주의 사무실 위층)

영주 : 최계장님, 저 수당 신청한 거 다시 해지 신청하려고요. 청년주택 청약을 위해 어머니 주소지를 옮겨 놓은 건데, 그게 잘 안 되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신경이 계속 쓰여요. 차라리 그 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 주소지 복귀시켜 놓으려고요. 그래야 맘이 놓일 거 같아요.

최계장 : (영주의 맘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래 네 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 생각은 그냥 나중에 다시 주택청약 같은 걸 위해서 두면 좋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아니다. 네 맘 가는 대로 해.

영주 : 그런데 최계장님은 감사과에 근무하셨으니까 묻는 건데요. 제가 받은 한 달분 수당,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요?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위장 전입신고로 받은 수당, 그 수당 때문에 저 감사에 적발되는 게 아닐까요? 최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최계장 : (영주가 귀엽다는 듯) 야 인마! 됐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잠이나 더 자라!

최계장은 다시 유유히 사무실로 복귀한다. 영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해지 신청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한다.

S#19. 영주의 사무실(오전)

영주 : 총무과 ○○○주임님이시죠? 저 약 한 달 전에 신청한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해지하려고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할까요?

총무과 : 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받았던 수당 등은 다시 반납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문제라도?

영주 : 아... 문제없습니다. 개인 사정상 그렇게 됐어요. 당연히 수당은 반납해야죠. 그럼 공문 작성하여 요청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수당은 해지하지 말고 그냥 둘까? 라는 맘이 끝끝내 영주의 결정을 흔들고 있었지만, 영주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곤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영주 : 어머니 저 괜히 어머니 주소지 제 주소지로 옮겼나 봐요. 결국엔 청년주택도 안 되었고 수당 신청한 것도 있는데 맘이 쓰여 다시 취소했어요. 어머니 주소지를 왜 저한테 옮겨놓았나 싶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후회만 남네요. 그냥 그대로 둘걸.. (울먹이며)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니가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무단전출 직권말소자라는 오명을 받을 뻔해서.. 자식으로서 참 불효가 막심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영주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수화기 너머로 격려의 말을 건넨다.

어머니 : 난 다 알고 있었단다. 주소지를 옮기면 실태조사를 나오는 것도, 그리고 네 맘이 쓰일 것도 다 알고 있었단다.

영주 : (놀란 듯한 기색을 보이며)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주소지 옮기는 일도 없었을 거고 이런 실망도 그리고 수당을 신청하고 반납하는 번거로움도 애초에 없었을 텐데....

영주는 어머니의 의중이 몹시 궁금해졌다.

어머니 : 비록 청년주택은 당첨이 안 되었고 이 과정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주 네가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영주 네가 현재 고위공무원이 아니라서 위장 전입신고가 지금 당장 네 공직생활에 큰 흠결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다른 부분에서 착실한 과정을 밟아왔더라도 이러한 점 때문에 결격사유가 돼 결국 공직생활의 명운이 달라지는 경우를 너도 보아왔을 거야, 그런데 비단 이 문제는 고위공직자라는 부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란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결백이 국민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 청렴은 일부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닌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감인 거지..

영주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말에 답한다.

영주 :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어야 했어요. 이 과정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라도 청렴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것이 크든 작든 저 스스로 근절해야겠어요. 비록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자중하여 근신한다면 진정한 청렴의 모습은 제게도 나타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공직자의 길을 가는 이유고, 또 가야만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 그래, 조금은 더디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를 헤쳐나가야 그 결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꼭 규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중하여 형성된 청렴 의식이 공직자로서 영주 네가 늘 간직해야 할 덕목이란 것을 이번 기회에 더욱 깊게 새겨놓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의 불편함은 계속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영주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큰 교훈이 될 것이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우스갯소리이지만 잠시 잠깐 영주 너의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니 아들하고 같이 서울에 살아본 경험도 되지 않았니? 나한테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단다.

어머니는 영주의 깨우침에 크게 흐뭇해하며 대견해한다. 영주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감명에 잠기기도 하고 마지막 말에는 약간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등본에 단 한 줄의 이력만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그것은 어쩌면 영주가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려는 새로운 출발선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영주에게는 청약주택의 당첨도, 가족수당의 수령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영주에게 안겨 주었다. 공정과 정의, 올바름을 바탕으로 한 과정만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 더욱 그것을 안고 나아가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그 감정을 말이다. 영주의 얼굴에 묻어 나오는 환한 미소와 함께 커튼이 내려지며 조명이 점차 어두워진다.

<끝>